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 나주시, 작년 관광객 160만 달성...전년대비 30% 증가

### 역사·전통·문화예술 접목 관광객 증가 기여



지난 해 나주시를 방문한 관광객 숫자가 160만 명을 돌파했다. 5월 나주시가 밝힌 주요관광지점 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나주시를 찾은 관광객은 총 1,613,43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16년) 대비 약 30%가 증가한 수치이며, 관광객 100만 시대를 열었던 지난 2015년 이후 2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더욱이 격년제 개최로 이번 통계에 미 반영된 2017국제농업박람회 방문객 50만 명(501,163명)과 집계 대상이 아닌 나주 관내 여타 관광지 방문객까지 포함했을 때 실제 관광객은 200만 명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주시는 이번 통계자료에 빛가람 전망대, 금성관, 국립나주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14개소를 방문한

관광객 수치를 반영했다. 관광객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2018년 전라도 정명 천 년을 앞두고 금성관에서 개최한 D-1년 기념음악회를 비롯해, 나주천 일대에 펼쳐진 전연염색 축제, 국악공연인 나주 풍류열전, 또 국립나주박물관 일원서 열린 제 3회 마한문화축제 등 나주만의 역사·전통과 색다른 예술·문화를 접목시킨 다양한 축제 이벤트의 성공적 추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관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빛가람 전망대는 지난 해 관광객 34만 명을 동원하며, 나주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발돋움했다. 이번에도 영산강 화포꽃배 탑승 체험, 주말 나주 시티투어, 인기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인기를 모은

나주영상테마파크 등이 관광객의 발걸음을 유도해냈다. 나주시는 올해 관광객 200만 명 시대 개막과 더불어 전라도 정명 천 년을 맞아 전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공원', '죽산보 오도캠핑장', '항공레저 이착륙장', '어린이 물놀이공원', '영상테마파크 한옥숙박체험장' 조성사업 등 다양하고 매력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16년 문화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광주광역시, 담양군, 목포시 3개 지자체와 함께 '남도 맛 기행'을 공동테마로 설정하고, 권역별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5개 분야 24개 상비으로 구성된 전라도 정명 천 년 기념사업도 올해 1월 '천 년의 소망 울림' 정수루 북 무드림 행사를 시작으로 성공적 추진을 다짐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관광객 200만 명을 넘어, 500만 시대 개막을 목표로 전라도 정명 천 년 역사의 중심지이자, 전남을 대표하는 최고의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를 이뤄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주요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과, 미등록 신규 관광지 발굴을 통해 우리 지역 민의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 회순군, 다양한 민원시책 추진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곳모닝&야간민원실 운영 등 회순군은 올해에도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해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 제공에 발 벗고 나섰다. 5일 회순군에 따르면 군의 대표 얼굴인 행복민원실에서 근무시간 내 민원서류 발급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곳모닝&야간민원실을 운영키로 했다. 군은 곳모닝 민원실 운영을 통해 5중(주민등록, 인감, 여권, 제증명 발급 및 민원접수)의 민원업무를 일과시간 전 08:30분부터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펼치기로 했다. 또한 야간민원실에서 평일 20시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주 화요일에는 여권 접수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했다. 군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종합민원관과 인허가과 부서를 통합해 행복민원실로 명칭을 변경,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축, 개발행위, 환경민원 등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민의 고충 및 민원불편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회순군 민원포넌터' 운영도 활성화 된다. 군은 민원포넌터와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군민 불편 사항을 수렴하는 등 군민과 협업하는 시스템을 통해 열린 행정 실현하고, 매일 아침 마음을 움직이는 고객 응대, 불만 고객 응대 방법 등의 내용의 영상을 시청하고 직원 친절마인

드를 향상시키는 등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장과 직원들의 근무복을 통일해 착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양심우산 무료대여, 사회적 약자(65세 이상, 임산부, 장애인 등)를 위한 여권 무료 배달제, 여권케어 제작·배부, 찾아가는 인허가 무료상담소 운영, 인허가 매뉴얼 제작·배부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펼치고, 달라지는 군정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순=박순철 기자

## 국민안전 책임지는 산림재해일자리 본격 가동

### 순천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재해일자리 발대식 개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예방·방제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산림재해 일자리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먼저, 금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 등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청년층 및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

하고 2017년 봄철 20명의 산불예방진화대를 2018년에는 60여명으로 확대 배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농산폐기물 소각 단속 등 사전 산불예방활동과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사태취약지역 안전 점검을 위한 산림보호원,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 저지를 위한 예찰·방제단 인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임도시설 관리원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산림일자리 또한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최근 관리소에서 '산림재해일자리 발대식'을 갖고, 봄철 산불예방·진화 등을 위한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 등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청년층 및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

순천=김승호 기자

## 순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순천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5톤이상의 노후경유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도내 최대 금액인 9억6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중고차 성능 점검결

과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올해는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2.5톤 이상 3.5톤 미만은 165만원, 3.5톤 이상은 77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저소득층(생계형)의 경우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노

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하고,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의사항을 전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환경보호과(749-5498)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드론 활용 신산업 분야 행정서비스 접목에 박차

광양시가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드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회의를 갖고 드론기술을 접목한 행정서비스 접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19개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6일 전남동부권 유일한 국토부 지정 드론교육기관인 (주)날다와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부서에서 드론을 활용에 실행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행정분야에서 접목 가능한 드론 사례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부서별로 드론기술 적용 가능한 진의응답과 행정에 드론 도입방안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 결과 각 부서별로 드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분야별로는 관광분야, 시설분야 농업·임업 분야 등 3가지 분야로 도출됐다. 먼저, '관광분야에서는 관광 콘텐츠 제작과 지역의 축제나 행사시 방

문객 인원 조사 등이 제시됐다. '시설분야에서는 차량 상시 통행으로 접근이 어려운 교량과 도로 터널 등 점검, 교통 혼잡지역 상시 관찰, 재해위험지구 상시 관리 등이 제안됐다. '농업·임업 분야에서는 병해충 예방을 위한 예찰과 방제 활동,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 활동 등이 제시됐다.   
광양=김흥권 기자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도마도, 느타리버섯, 신암삼